

[장애 예술 공연장 리모델링] 제안공모 심사결과 공고

〈장애예술 공연장 리모델링 제안공모〉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일시/장소 : 2021. 10. 8.(금) 12:30~16:00/ 구세군빌딩 2층
- 심사방법 : 심사위원 토론에 의한 투표제
- 심사위원(가나다순)

성명	소속	비고
강주형	생각나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	심사위원장
김정임	서로아키텍츠	
박윤구	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	예비 심사위원
박인수	파크이즈건축	
배은주	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	
이태섭	용인대학교 연극학과	

* 우의정 심사위원 불참으로 인해 예비 심사위원 강주형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진행

○ 심사결과

구분	연번 (심사번호)	접수번호	업체명	대표자명	발표순서
당선작	03	IL327	주식회사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	주대관	2
			(주)건축사사무소 닷	신현국	
			(주)케이티씨씨엠	곽준호	
2등 (최우수작)	01	YD341	(주)제이유건축사사무소	박제유	1
			예우컨설팅그룹	한신탁	
3등 (우수작)	02	TA305	이상환경건축사사무소	권성표	3
			(주)바이콤	정기영	
			(주)한일티앤씨	유제황	

- 기타 문의사항 :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기획부(T.02-760-9727)

2021년 10월 12일

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

붙임

심사위원 심사평

구분	내용
당선작	○(강주형) 장애예술 공연장으로서의 비전과 공연장에 대한 구체적 제안 내용이 탁월함.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연장과 지원공간이 되도록 설계과정에서 UD 및 BF 전문역량 보완 필요 ○(김정임) 제안범위가 아닌 공용부에 대한 제안, 가족화장실,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의 마련 등 사용자 입장에서 섬세한 배려가 돋보임. 향후 실제 설계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수용하며 좋은 안을 만들것으로 기대됨. 현재 건물의 주출입구 진입에서의 배리어프리 등 구조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 ○(박윤구)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지는 않지만, 참가팀 중 가장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기대되는 팀 ○(박인수) 전체 건물에 대한 설계를 통해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음은 물론 효율적인 구성을 제안 - 공연장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특히 무대의 준비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 필요 - 로프트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음 - 설계진행시 발주처의 협조가 절대적이므로, 발주처의 요청을 잘 종합하여 진행, 건적을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○(배은주) 혁신적인 설계안과 공간적인 특성에 배려가 뛰어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임.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결성해 현장에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장애예술인 및 모두를 위한 전문적인 공연장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함. ○(이태섭) 장애인 공연장에 대한 충실한 스터디가 돋보이며 전반적 디자인에 대한 세련도와 독특한 면으로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현실화 될것으로 판단됨.
최우수작	○(강주형) 공연장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공연자 활동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수합니다.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공용부 공간 아이디어가 아쉽습니다. ○(김정임) 현실적인 안으로 보이나 새로운 제안이 부족해 보임 ○(박윤구)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타 팀에 비해 조금 뒤떨어짐 ○(박인수) 공연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듯 하지만,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너무 다이어그램적인 접근을 하여, 실제화 할때,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. ○(배은주) 발표 내용에 배리어프리 부분 및 유니버설에 관한 고민 및 장애예술인의 특성 장애 유형별 기본 지식이 미비하여 차후 설계에 적용 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발표자가 PT하는 부분에 깊은 이해도가 결여되어 보이는 부분이 아쉬움 ○(이태섭) 공연장을 충실히 제안한 것으로 보여짐. 좀 더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음

구분	내용
우수작	○(강주형) 적극적인 아이디어 전개와 공연장 설비에 대한 고민이 돋보입니다. ○(김정임) 많은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새로운 제안이 부족해 보임 ○(박윤구) 행사를 많이 해 본 느낌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, 노력에 대한 기대가 2번 팀에 못미칠것 같음 ○(박인수) 도식적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여 발표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과 협업 등을 이야기 하였으나, 제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고, 특히 설계자의 경력 면에서 본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였다. ○(배은주) 베리어프리 부분과 장애 이해도, 사고시 대피 관련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으나 공연장에 관한 특화된 방법적인 부분에 제시하는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됨 ○(이태섭) 일반적 기능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롭고, 세련된 장애인극장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